

##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간도적 글쓰기 — 지방성과 여성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최 현 희\*\*

### 요약

강경애의 간도 시기 문학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들은, 계급의식과 여성성이라는 두 가치 개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인간 문제>를 비롯한 강경애의 대표작들은, 계급주의 현실 전망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러한 전망이 제시되기 위해서 여성인물의 수난과 자기희생이 필수 과정으로 부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강경애론은 작가의 계급주의적 현실인식이 여성성 인식을 결여한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한계성이 역설적으로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함에 주목하곤 했다. 이 논문은 강경애 문학의 그러한 계급주의의 전망이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비판되거나 혹은 여성성이라는 보충물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긍정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현재의 독법은 전망보다도 그에 대한 보충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언제나 작품의 담론적 표면에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서만, 또 작품이 재현하는 현실 속으로 번역되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서만 현현하는 여성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간도 시대 강경애 문학은 어떤 의미화도 거부하는 '문제'의 형식으로 남으며, 그것을 해석하는 현재의 독자는 그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려다가 실패하는 자로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강경애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

문학의 ‘문제’적 형식성은 담론적으로는, 음성화되지 않는 부호,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형태소를 통해 드러나며, 내용적으로는 궁극적 의미화의 좌절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어떤 보편적 세계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간도’라는 곳의 지방성이, 저자와 독자 사이의 끝없는 상호적 해석을 통하여 무한히 연장되는 ‘글쓰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아, 이를 ‘간도적 글쓰기’로 명명하였다. ‘간도적 글쓰기’는 강경애의 진의와 그것을 가리는 먹칠 사이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어떤 현실적 전망보다도 더 현실적인 여성성이라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강경애, 간도, 여성성, 지방성, 글쓰기

## 목차

1. 간도적 글쓰기
2. 여성의 침묵
3. 먹칠과 인쇄 사이
4. 결론

## 1. 간도적 글쓰기

강경애(姜敬愛, 1906~1944)의 작가적 이력에서 간도(間島) 체험은 중추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6년생인 강경애의 글이 최초로 활자화된 것은 1924년이지만 소설가로서의 경력이 시작된 때는 <파금(破琴)>(『조선일보』, 1931. 1. 27~2. 3)이 나온 1931년이다. 그는 이즈음 사회주의 교육자이자 운동가인 장하일(張河一)을 만나 결혼하고 곧 1931년 6월 간도 용정(龍井)으로 이주하여 1939년까지 거주한다. 1934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 <인간 문제>

를 비롯하여 강경애 작품의 거의 대부분은 그가 간도에 거주하던 1931년부터 1939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다. 그의 작품 목록을 검토해 보면 본격적으로 간도 체험을 다룬 시기는 <채전(菜田)>(『신가정』, 1933. 9)을 발표한 때부터 <검둥이>(『삼천리』, 1938. 5)가 나온 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sup>1)</sup> 1931~32년 동안에 강경애는 소설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 1938년에 발표된 작품은 <검둥이> 한 편에 불과하다는 점, 1939년에 신병 악화로 황해도 장연으로 귀향하여서는 1944년 사망 시까지 작품 발표가 없다는 점, 1933~37년 기간 동안에는 매년 최소 세 편 이상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경애의 간도 시대 중 작가로서 의미 있는 기간은 1933~37년의 5년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은 만보산사건(1931. 7), 만주사변(1931. 9), 괴뢰 만주국 건국(1932. 3), 일제의 병비(兵匪)토벌(1932. 5)과 같은 격변기 이후, 일제가 완전히 만주를 장악한 시점에서 시작되고 중일전쟁(1937. 7)이 발발한 시점을 즈음하여 종료된다.<sup>2)</sup> 간단히 말해 강경애의 간도 시대는 괴뢰 만주국 시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인용은 이 시기 그가 작가로서 자기를 어떻게 정위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필 <이역(異域)의 달밤> 중 일절이다.

이곳은 간도다. 서북으로는 시베리아, 동남으로는 조선에 접하여 있는 땅이다. 추울 때는 영하 40도를 중간에 두고 오르고 내리는 이 땅이다. (중략) 황폐하여 가는 광야에는 군경을 실은 트럭이 종횡으로 질주하고 상공에는 단엽식(單葉式) 비행기만 대선회를 한다./ 대산림으로 쫓기어 XX를 들고 XXXXXX하는

1) 이상의 서술은 강경애, 《강경애 전집》, 이상경 편, 소명, 1999, 815-820면에 실린 연보를 따랐다.

2) 최학송, 「만주 체험과 강경애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33, 2007 참조.

그들! 이 땅을 싸고 도는 환경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저 극단과 극단으로 중간성을 잃어버린 이 땅이다./ 인간은 1937년을 목표로 일대 살육과 파괴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한다. 타협, 평화, 자유, 인도 등의 고개는 벌써 옛날에 넘어버리고 지금은 제각기 갈 길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략) 이 거리는 중요하다. 이따금 보이느니 개털모에 총을 메고 우두커니 섰는 만주국 순경뿐이다.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마차의 지르릉 울리는 종소리…… (중략) 붓을 들고 쓰지 못하는 이 가슴! 입이 있고도 말 못하는 이 마음! 저 달 보고나 호소해볼까. 그러나 차디찬 저 달은 이 인간 사회의 애담은 이 정황에 구애되지 않고 구름 속으로 또 구름 속으로 흘러간다./ 대자연은 크게 움직이고 있다. (744-45, 『신동아』, 1933. 12)<sup>3)</sup>

글의 끝에 기록된 “33년 11월 용정촌에서”라는 구절로 알 수 있듯이 글은, 강경애가 괴뢰 만주국 시대 간도에 거주하는 작가로서 어떠한 자세로 창작에 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은 괴뢰 만주국 건국과 그에 이은 일제의 대대적인 항일 세력 격퇴 작전 이후이다. 이때 간도는 “만주국 순경뿐이” “고요”한 “거리”를 지키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경애는 병력을 수송하는 차량과 상공을 선회하는 비행기를 보며 일제가 도모하고 있는 전쟁과 그에 따른 “살육과 파괴”가 임박했음을 예민하게 감지한다. 또 한편 그는, “대산림으로 쫓기어” 들어간 항일 세력의 암약 역시 놓치지 않는다. 강경애의 삶의 장소로서의 1933년말의 간도는, 식민주의와 그 저항이 각각 “극단과 극단으로” 치달아 “인간 사회”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3) 강경애, 앞의 책, 744-745면. 이하, 강경애 작품은 이상경 이 편찬한 이 책에서 인용하며 출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아울러 최초 발표 지면 역시 이 같이 표시한다. 단 〈인간 문제〉의 경우 이상경 편 전집은 강경애 사후인 1949년에 북한에서 나온 개작본을 저본으로 택하고 있는데, 이 개작의 주체가 강경애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 발표 지면인 『동아일보』 연재본을 저본으로 최원식이 편찬한 문학과지성사 판 (2006)을 텍스트로 한다.

는 사라져 버린, “대자연”만이 남아 있는 무의미한 ‘공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 강경애는 “붓을 들고 쓰지 못하”고 “입이 있고도 말 못하는” 상태에 처해있었다. 그렇다면 1934년에 나온 〈소금〉과 〈인간 문제〉, 1935년의 〈원고료 이백 원〉, 1936년의 〈지하촌(地下村)〉 등 강경애 문학의 대표작들은, 쓰지 못하는 것을 써낸 고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작가가 글쓰기를 통하여 식민주의의 억압에 저항을 했다는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본 식민주의가 출판물 검열 등의 제도적 폭력을 통해 금지했던 주제를 쓰는 데에만 강경애의 작가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강경애에게 식민주의에 동조하는 화해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에 대한 저항 이념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차단된 것이었다. 여기서 강경애의 간도 시기 글쓰기는, 어떤 이념도 표현하여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된, 글쓰기의 행위 자체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강경애의 간도 시대 작품을 현재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작가의 혹은 당시의 어떠한 ‘이념’이 표현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쓰기 행위 자체가 지니는 수행적 효과는 무엇인가여야 할 것이다.<sup>4)</sup> 물론 당시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 작가라면 당연히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가졌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의식의 유무가 현재 간도 문학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은 강경애가 위

4) 이 글에서 사용되는 ‘글쓰기’라는 용어는, 텍스트를 그 외부에 존재하는 의미의 투명한 표현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쓰이고 동시에 해석되는 과정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의미의 수행으로 보는, 자크 데리다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문학적 언어에 대하여 데리다는, 자기 아닌 무언가의 기호여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담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Jacques Derrida, “Force and Signification,”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2).

의 인용에서 써놓았듯 “쓰지 못하는 이 가슴!”이라는 부정 표현과 느낌표라는 문장 부호로만 드러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강경애 텍스트에서 우리가 현재 읽어내는 ‘작가 의식’이란 사실은, 부정형이라는 문법 현상으로서만, 또는 “말 못하는” (즉 소리 내어 읽을 수 없는) 부호로서만 실재하는 것이다.

기존의 강경애론은, 시대 의식을 지닌 작가로서 의당 써야 할 것을 못 쓰는 자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의 철저한 작가의식의 발로로 해석하곤 한다.<sup>5)</sup>

돌 한 개 만져보지 못한 나, 흙 한 줌 쥐어보지 못한 나는 돌의 굳음을 모르고 흙의 보드라움을 모르는 나는, 아니 이 차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히 이렇게 호사스럽게 차 안에 앉아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지 않은가./ 차라리 이 붓대를 꺾어버리자. 내가 쓴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때껏 배운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 붓끝에 씌어지는 것은 모두가 이런 종류에서 줍쌀 한 알만큼, 아니 실오라기만큼 그만큼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저 한판에 박은 듯하였다. (732, 『동광』, 1932. 8)

위의 인용은 만주국 건국에 이은 일제의 대대적 항일 운동 세력 소탕이 불러온 혼란을 피하여 잠시 간도를 떠나 조선으로 돌아오는 심경을 쓴 〈간도를 등지면서, 간도야 잘 있거라〉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작가 의식이 명백히 드러나는 지점은 “차라리 이 붓대를 꺾어버리자”는 문장으로, 이를 통해 “돌의 굳음”과 “흙의 보드라움”을 그대로 현현시키는 글을 쓰지 못할 바에는 “내가 쓴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작가의 자기반성을 읽어낼 수 있다.<sup>6)</sup> 이는 강경애가

5) 송명희, 「강경애 문학의 간도와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 2008, 14면.

6) 서영인, 「강경애 문학의 여성성」, 김인환 외 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

작가 자신을 연상시키는 지식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들, 즉 <원고료 이백원>, <동정>, <그 여자>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강렬한 자기비판과도 이어지는 테마이다.<sup>7)</sup>

강경애의 철저한 작가의식은 곧 하층민 여성 형상의 꺾진성과 연결되곤 한다. 강경애 소설에는 하층민 인물들(성별을 따지면 주로 여성들)의, 독자를 경악시킬 정도의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궁핍(destitution) 상태가 적나라하게 재현되어 있다. 그 경악은 때때로 독서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할 정도로, 또 그 정도로 적나라하게 재현된 대상의 의미화(signification)를 방해할 정도로 심해지기도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를, 강경애가 지식인-작가로서의 자기비판을 철저히 행한 결과 도달한 현실에 대한 충실성으로 해석하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법에는 다음의 두 전제가 동시에 깔려 있다. (1) 쓰는 자가 글에서 자기를 배제시킬수록 그 글의 대상(혹은 글 외부의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2) 글을 읽고 해석하는 행위를 좌절시킬수록 그 글의 대상은 더 현실적이다. 이 두 전제는 또한, (1.1) 텍스트의 궁극적 의미는 그 외부에 있다, 와 (2.1) 텍스트의 생산과 그 의미의 확정은 따라서 저자와 독자가 텍스트 자체와는 상관이 없을 때에 성취된다, 는 전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놓고

우스코리아, 2006, 105-111면.

- 7) 정미숙은 강경애 소설에서 '간도'라는 공간적 배경이 갖는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강경애 특유의 여성 형상을 "간도예의-존재"로 개념화한 바 있다. (『강경애 소설과 '간도'의 공간적 시점』,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 2008, 53면). 이 연구에서 강경애의 작가로서의 자기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의식은 지식인-작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통해서 확인되고 어떤 의식적 이데올로기에도 환원될 수 없는 여성성은 하층 여성을 그린 작품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는 자기비판-자기(自棄)를 방법으로, 비(非)자기에 대한 충실성을 그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으로 전제하고 있는 논법이다. 이 글은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을 작가의 간도 '지방성'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정미숙의 구도에는 동의하지만, 여성성과 지방성 모두 텍스트 표면의 형식적 차원에만 현상한다고 보며, 이를 포착하는 개념으로 "간도적 글쓰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보면 작가의 자기비판=현실의 적나라한 재현이라는 기존 연구의 도식은, 위에서 지적한바, 강경애 간도 시기 문학의 글쓰기에 대한 자기반성이 드러내는 자기성(自棄性)을 은폐해 버리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강경애가 간도 시기 문학에서 지향한바, “자연”을 재현(再現)하지 않고 그대로 현현시키려고 하는 글쓰기란, 글을 쓰지 않음이라는 행위와 쓰인 글이라는 재현물 사이의 간극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실에 직립하고자 하는 강경애의 작가 의식은 자기 글쓰기가 현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 그것을 자인함에도 불구하고 쓰는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자기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나’가 현실과는 다른 글을 쓰는 ‘나’에게 하는 청유가 “차라리 이 붓대를 꺾어버리자”는 종결법으로, 전자의 ‘나’가 후자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쓰는지 가지는 의문이 “내가 쓴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나타난다.

강경애의 부정문과 문장부호는 현재의 해석자가 개입함으로써만 그 의미를 드러내며, 그의 청유와 의문의 종결법 역시 그 문장들의 수신자가 현재의 해석자일 때에만 거기 담긴 작가 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강경애 문학의 간도 문학으로서의 의의가 그 글쓰기의 차원, 즉 현실적 행위와 재현된 텍스트 사이의 차원에 존재함을 증명한다.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것은, 쓰는 주체가 생산한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결코 수행될 수 없으며, 텍스트가 그것을 쓴 주체의 의도를 벗어나고, 나아가서는 그 주체란 텍스트의 생산에 반하는 자로서 현현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이것이 ‘간도적 글쓰기’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이 글의 논의는, ‘간도’가 작가의 재현 욕망을 거부하는, “인간 사회”를 벗어난 원시적 “대자연”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간도’에 대해서는 쓸

수 없으며, 만약 간도에 대한 글이 있다면 그것은 ‘대자연 간도’에 대한 ‘인간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간도적 글쓰기’라는 개념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강경애 문학에서 우리가 읽어 내는바 ‘간도적 글쓰기’란, 강경애가 쓴 것 가운데서 ‘쓸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고유의 방식을 찾는 우리의 해석 과정 중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강경애가 살고 있었던 장소인 ‘간도’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과정<sup>8)</sup>이며, 그런 의미에서 ‘간도적 글쓰기’라는 명명은 가능한 것이다.

이 글은 이 개념을 통하여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의미화를 거부하는 ‘여성성’이 텍스트의 의미화의 좌절로서가 아니라 그 표층에서 의미를 생성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2장의 분석) 그리고 그 의미 생성 과정은, 강경애 텍스트의 (말 그대로의) 표면에 남아 독자의 최종적 해석을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일체의 검열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것이다. (3장) 이 분석들을 통하여 결국 강경애 텍스트는 작가의 혹은 당대의 이념의 단순한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텍스트가 생산된 장소와 그것을 해석하는 장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여성의 침묵

강경애 문학의 간도 시대는 주지하다시피 1931~39년이며 이는 작가의 문학적 전성기라 할 1933~37년 시기를 온전히 포함한다.

8) Gayatri Chakravorty Spivak, "A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Subaltern: A Woman's Text from the Third Word."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1998)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작품이 장편소설 〈인간 문제〉(『동아일보』, 1934. 8. 1~12. 22)이다. 이 작품은 일제시대 한국 문학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 중 한 편으로 평가<sup>9)</sup>되는 한편 “추상적 이상주의로 귀결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무거운 틀”을 극복하지 못한 채 “평면성”이라는 한계를 노정한 작품<sup>10)</sup>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논리의 핵심에는 〈인간 문제〉의 주인공인 선비라는 여성 인물의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 황해도 용연 마을 출신인 선비는, 식민 권력과 결탁하여 소작농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지주 덕호 때문에 아버지를 잃으며, 자신은 또 덕호에게 겁탈당한 후 마을을 떠나 인천의 방적 공장에 취업한다. 공장에서 만난 어린 시절 친구 간난이의 도움으로 선비는 계급의식에 눈을 뜨게 되지만 막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폐병으로 죽고 만다.

이 과정에서 선비는 그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남성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들은 용연 마을 지주 덕호, 덕호의 딸 옥점과 유사 연인 관계에 있는 인텔리 신철, 인천 방적 공장의 감독, 용연 마을의 소작농 출신으로 이후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는 첫째, 이상 네 명이다. 이들 중 선비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면서 소설의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인 첫째와, 첫째가 사상적 개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식인 신철, 이들 둘은 작품 속에서 선비와 대화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반면 지주 덕호는 선비를 겁탈하고 공장 감독은 선비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갖은 수작을 한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 인물들은 철저히 선비를 대상화하는 데서 그친다는 점에서, 선비와의 관계에 관한 한 신철과 첫째와 사실상 동일하다. 요컨대 선비는 〈인간

9)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10) 최원식, 『〈인간 문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과와 한계』, 강경애, 《인간 문제》, 최원식 편, 문학과학지성사, 2006, 412-13면.

문제) 서사의 축을 이루는 남성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로부터, 이들 전형적 두 인물군이 빚어내는 계급 갈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한참이나 생각하던 선비는, 좀더 있다가 간난이가 나갔으면 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을……하며, 그가 무사히 나갔는가 하였다. (중략) 동시에 미지의 동지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와 같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지? 혹 첫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모르는가……하였다. (중략) 아직도 그는 암흑한 생활 속에서 그의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동분서주만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선비는 첫째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의식을 전해 주고 싶었다. 그러면 그는 누구보다도 튼튼한, 그리고 무서운 투사가 될 것 같았다. (중략) 그래서 손끝을 불에 대며 덕호를 겨우 벗어난 자신은, 또 그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에게 불들려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오늘의 선비는 옛날의 선비가 아니라……고 부르짖고 싶었다.<sup>11)</sup>

총 120회의 연재분 중 위의 인용은 113회에 해당하며, 선비의 죽음은 118회에 암시되어 마지막 회인 120회에서 확인된다. 선비를 “계급의식”으로 이끌었던 간난이가 공장을 탈출하여 “미지의 동지들”과 파업을 도모하고 있는 사이, 간난이가 자기에게 맡긴 임무들을 곱씹어 보던 선비는 그들과 계급적 연대감을 느끼며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정체성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첫째를 다시 만나 그를 “암흑한 생활”로부터 구원하여 “무서운 투사”의 길로 이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으로 이어진다. “옛날의 선비”로부터 탈피하여 “오늘의 선비”로 다시 태어난 그는, 이제 남성들만이 주체로 나서서 계급 갈등의 장에 자신의 분명한 몫이 있음을 “부르짖고 싶

11) 위의 책, 367-68면.

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비의 이 “부르짖”음은 끝내 〈인간 문제〉에 나타나지 못한다.

병자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었으며 얼굴이 파랗게 되었다. 철수는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찻째를 돌아보았다. 가슴을 졸이고 섰던 찻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들여다보는 순간, “선비!”/ 그도 모르게 그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우뚝 섰다. 그의 앞은 아득해지며 어떤 암흑한 낭 아래로 채여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리워하던 이 선비! 한번 만나보려나…… 하던 이 선비, 이 선비가 인젠 저렇게 죽지 않았는가! 찻라에 그의 머리에는 아까 철수에게서 들었던 말이 번개 같이 떠오른다. (중략) 그렇다! 신철이는 그만한 여유가 있었다! 그 여유가 그로 하여금 전향을 하게 한 게다. 그러나 자신은 어떤가? 과거와 같이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현재와 같이 아무런 여유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신철이는 길이 많다. 신철이와 나와 다른 것이란 여기 있었구나! (중략) 한번 만나 이야기도 못 해본 그가 결국은 시체가 되어 바로 눈앞에 놓이지 않았는가!/ 이제야 죽은 선비를 옳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찻째의 눈에서는 불덩이가 펄펄 나는 듯하였다./ 그리고 불불 떨어졌다. 이렇게 무섭게 찻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멍치가 되어 그의 앞에 각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멍치! 이 멍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멍치…… 시커먼 멍치, 이 멍치야말로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sup>12)</sup>

“오늘의 선비”의 자기 선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찻째는, 소설의 대미를 이루는 위의 인용에서 보듯, 시체가 되었을 때에야 겨우 선비를 처음으로 만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동조적인

12) 위의 책, 388-390면.

부르주아 출신 지식인 신철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지식인으로부터 사상 교육을 받음으로써 계급의식을 각성한 첫째였지만, 이 장면에서 그의 의식은 그러한 도움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한층 철저해지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주목할 것은 이러한 사상적 개안을 결정적으로 촉발하는 “선비의 시체”가 “시커먼 멍치가 되어” 첫째의 “앞을 캄캄하게 하”며,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멍치”가 “인간 문제”로 격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모든 모순의 원인으로 계급 갈등을,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프롤레타리아 승배를 내세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추상적 이상주의”가 돌출하는 순간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해석의 초점을 첫째의 각성이 아니라 선비의 침묵으로 옮긴다면 이는 오히려 〈인간 문제〉의 ‘구체성’을 보증하는 근거가 된다. 선비의 죽음에 당면한 첫째의 각성과 앞으로 그가 수행해 나갈 계급투쟁은, “인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오늘의 선비”가 육체적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sup>14)</sup> 그러나 첫째가 자기에게 건내는 “선비!”라는 호

13) 지식인인 신철의 관점에서 〈인간문제〉의 결말 부분의 의미를 논의한 연구로 정원채,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에 대한 인식』, 『현대소설연구』 42집, 2009 참조.

14) 제4차 간도 공산당사건(1930)을 배경으로 하는 강경애의 작품 〈어둠〉(『여성』, 1937. 1-2)에 대한 분석에서 이상경은 이 작품이 “가난이든 양심이든 인물을 버랑 끝까지 밀고 가는 작가의 냉정함 혹은 문제 추구의 성실함”을 그 작가의식의 근간으로 함을 지적한다. 이상경은 이러한 철저한 작가의식 덕분에 강경애가 당시 조선 내의 어느 작가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 사건을 형상화할 수 있었음을 고평한다. 한편 〈어둠〉의 여주인공은 간도공산당사건의 당사자의 여동생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녀는 사건의 압도성에 짓눌려 정신이 파탄 나 버리는 결말을 맞는다. 이상경은 여성 인물의 이와 같은 형상화 방식이, 상황을 주도하는 남성 주체에게 자기를 의탁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주체성을 회복하는 방식일지 모른다고 해석한다. (이상경, 『1930년대 후반 여성 문학사의 재구성』, 『페미니즘연구』 5, 2005, 26-34면). 〈인간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여성적 주체

명에도 침묵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선비는, 이와 같은 이념적 환원을 끝내 거스르는 “시체”라는 물질성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비의 시체”를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 문제>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끝내 “문제”로, “시키면 뭉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 문제>의 마지막 문장이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구일까?”<sup>15)</sup>라는 의문문에 그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갈려 계급 갈등을 빚는 남성들 사이의 전선이, 첫째의 프롤레타리아적 정체성의 절대화를 통해 보듯, 아무리 첨예화되고 극렬해진다 할지라도, 이 선비라는 여성은 것처럼 “인간”을 추상적 이념형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무화시키는 구체적 물질성으로 끝내 남는 것이다. 선비는 침묵하는 시체로 끝내 자기를 지속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모든 관념화에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문제”의 구체성을 육화하고, 그 상태로 “인간 사회”에서의 삶을 영원히 지속한다.

<인간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바, 그 해결책이 본질적으로 제시될 수 없는, “문제”로서의 인간은, 남성적 발화를 끝내 방해하고 남성의 진로에 “가로질리는” “시키면 뭉치”로서의, 여성적 신체의 물질성으로 육화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 문제>라는 작품은 “선비의 시체”를 “인간 문제”라는 보편성으로 순간적으로 비약시켜 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문제성을 절대화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작품의 제목과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자가 주체로서 자기를 의미화하도록 부추기는 질문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해석자는 <인간 문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

성의 현실로부터의 전면적 폐제를, 본고에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자기 의탁으로 보지 않고, 글쓰기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성의 물질적 현현으로 보는 것이다.

15) 위의 책, 390면.

되고, 그 과정에서 끝내 침묵하고 있는 “선비의 시체”에게, 첫째가 외친 “선비!”라는 호명 외에 다른 말 건네기를 시도해야 할 긴급성을 느낀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해석자는 침묵하는 여성, 즉 “젠더화된 서발턴이 재현되어 있는 동정적인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의 “주체-위치가 지정되는 과정 자체를 가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sup>16)</sup>

이는 <인간 문제>가 철저하게 주변부화된 여성을 주체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성을 절대화시켜 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고유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국 <인간 문제>는, 강경애가 간도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창작했다는 우연적 장소성 때문이 아니라, 쓸 수 없는 것이 글쓰기 속에서 고유성을 찾아가는 끝없는 과정으로 나타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간도적 글쓰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3. 먹칠과 인쇄 사이

<인간 문제>가 “젠더화된 서발턴” 선비를, 의문형 종결법과 물음표를 통해, 끝내 “시커먼 뭉치”라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었던 것은, 작가 강경애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엄혹했던 검열 탓이라고 볼 수도 있다. 쉽게 말해 강경애가 <인간 문제>를 의문문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본래 의도가 아니며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했던 결말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1949년에 북한에서 출판된 <인간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작품의 결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놓고 있다. (1)이 『동아일보』 1934년 연재본의 것이고 (2)는 1949년 북한 노동신문사 판본의 것

16) Gayatri Chakravorty Spivak, 앞의 글, 332면.

이다.

(1) 이 인간 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 천만 년을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구일까?<sup>17)</sup>

(2) 이 인간 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천만 년을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첫째와 같이 험상궂은 길을 걸어왔고 또 걷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인간들이 굳게 뭉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13, 북한 노동신문사, 1949)

(1)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누굴까?”라는 의문 속에 남겨 두고 있는 반면 (2)는 “첫째와 같이 험상궂은 길을 걸어왔고 또 걷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인간들”을 정확히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굳게 뭉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방법 역시 지정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 〈인간 문제〉의 전망을 짚어준 인물이 첫째이며 그에게 선비의 죽음의 의미는 계급의식의 철저화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의 ‘복원(復原)’은 작가 강경애가 의도한바 ‘원본(原本)’을 ‘되살린’ 적절한 결과일 것이다.<sup>18)</sup> 이 ‘복원’이 작가 자신의 것이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복원’의 결과 〈인간 문제〉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방법론의 경직된 작품화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즉 작중 인물 선비의 죽음이 갖는 의

17) 강경애, 앞의 책, 390면.

18) 남북한 통틀어 최초의 강경애 전집을 편집한 이상경이 『동아일보』판이 아니라 노동신문사 판을 저본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미가 완전히 고정되어 버림으로써, 그 고유성은 분쇄되어 버리고 나아가서는 〈인간 문제〉라는 작품 자체의 역사성 역시 은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인간 문제〉의 해방 후 북한 ‘복원’ 판이 초래한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바, 강경애 작품의 현실성은 이념의 직접 표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글쓰기 과정 속에서 이념의 궁극적 실현을 무한히 지연시킴으로써 적실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성을 어떤 ‘주의(主義)’로도 환원시킬 수 없는 물질성으로 남겨두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 그렇다면 현재 강경애 작품을 읽는 해석자로서의 우리는, 그 작가 강경애가 그 작품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이념이 무엇인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강경애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쓸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한 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의 검열로 작품의 결말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으며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복원이 시도된 작품인 〈소금〉(『신가정』, 1934. 5~10)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금〉은 간도에 이주하여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으로 빈궁한 생활을 꾸리는 가족의 농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들 봉식, 딸 봉염, 그리고 남편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헤가는 봉염 모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그는 일제의 후원을 받는 자위대와 중국인 지주 광동의 편에 서서 땅을 부치던 남편이 공산당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자 바다 모를 추락에 접어든다. 남편이 죽자 아들 봉식은 가출하여 공산주의 계열 항일 운동에 참여하고,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잃은 봉염 모와 봉염은 지주 광동의 집에 들어가 허드렛일을 해주며 연명한다. 봉염 모의 유일한 희망은 행방이 묘연해진 아들을 언젠가 만나겠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희망은, 어느 날 공산주의 활동으로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봉식을 목격한 광동이, 이를 빌미로 그녀를 내쫓아 버리면서 무산되고 만다. 아들에게 걸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며 생계를 이을 수단마저 박탈당하는 이 시점에, 봉염 모는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겁탈한 광동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시름 없이 머리를 숙이며 원수로 애는 왜 배었는지 하며 일감을 들었다. 바늘 끝에서 떠오르는 그날 밤. 그날 밤의 광동은 성난 호랑이 같기도 자기에게 덤벼들지 않았던가. 자기는 너무 무섭고도 두려워서 방안이 캄캄하도록 늘인 비단 포장을 붙들고 죽기로써 반항하다가도 못 이겨서 애를 배게 되지 않았던가. 생각하면 자기의 죄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자기는 선뜻 광동에게 이 말을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은 냉면도 못 먹고 이때까지 참아왔던가. 모두가 자기의 못난 탓인 것 같다. ‘왜 말을 못해. 왜 주저해. 이번에는 말할 테야. 꼭 할 테야. 그리고 냉면도 한 그릇 사달라지.’ 하며 그는 눈앞에 냉면을 그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나 이 생각은 헛된 공상임을 깨달으며 한숨을 푸쉬면서도 픽하고 웃음이 나왔다. 모든 난문제가 산과 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거늘 어린애 같이 먹고 싶은 생각부터 하는 자신이 우습고도 가련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먹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목이 가렵도록 먹고 싶다. 냉면만 생각하면 한참씩은 안절부절할 노릇이다. (507-508)

위 인용은 봉염 모가 광동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과는 달리 선뜻 이를 알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심리가 표현된 부분이다. 여기서 특히나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자신을 겁탈한 광동에게 분노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여 느끼는 억울함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체쳐두고 오직 “냉면”을 먹고 싶다는 욕망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봉염 모 스스로도 “모든 난문제가 산과 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을 잘 알지만 마치 모든 문제가 “냉면”을 먹기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자신이 우습고도 가련해 보”임

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그 주체를 거의 집어삼킬 정도로 격심해져만 가는 것이다. 여기서의 “냉면”을 두고 어떤 인위적 착취 시스템으로도 무화시킬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그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냉면”은 또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계급주의적 인간성이라는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지만, 위에서 지적했듯 “냉면”은 오히려, 봉염 모의 주체성을 붕괴시키는 중독물에 가까운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봉염 모는 오직 “냉면”을 먹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즉 “냉면”이 봉염 모라는 인간을 대상화하여 스스로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봉염 모가 작품의 초반부에서, 지주 팽동을 만나겠다고 나간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걱정하는 장면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없는 사람은 내고 남이고 모두 죽어야 그 고생을 면할 게야. 별수가 있나, 그저 죽어야 해.’하고 탄식하”(492)는데, 이 부분은 위에서 분석한 “냉면”의 의미와 연결시켜 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드러난다. 일별하기에 방금 언급한 이 탄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착취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제도화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읽힐 것이다. 봉염 모는 그러한 현제도 속에서 나고 자란 인물로서 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을 탄식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두 죽어야” 현제도의 “고생을 면할” 것이라는 말은, 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이란 생존을 볼모로 프롤레타리아를 무한히 착취하지만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의 생존에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그 명운이 걸려 있음을 폭로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석하자면, 이 말은 프롤레타리아가 추구할 미래적 ‘인간성’은 자본주의가 볼모로 잡고 있는 단순한 생존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했듯, 봉염 모가 팽동으로부터 얻

어내고자 하는 “냉면”은 그의 ‘생명의 순수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주체성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중독물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회복해야 할 인간성이란, “냉면”을 먹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냉면”을 “인간 문제”와는 무관한 물질성의 차원에 남겨둠으로써 성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이루는 소재 “소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봉염 모는, 조선에서는 싸게 구할 수 있던 소금을 간도에서는 매우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며 따라서 고된 농사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간이 맞는 음식을 해줄 수 없음을 깊이 탄식한다 (495). 남편이 죽은 후 지주 집에서 기식할 때에도 그는 “이 집은 소금을 흔하게 쓰두면”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반찬 한 번 맛있게 못 해주었”(505)던 처지를 한탄한다. 봉염 모는 위에서 서술했듯 결국 임신한 채로 지주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후 광동의 아이를 낳고 봉희라 이름을 붙인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봉염과 봉희를 놓아 두고 유모로 들어가 명수라는 남의 집 아이를 기르는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한다. 그러나 극심한 궁핍과 비위생적 환경 때문에 봉염과 봉희는 전염병에 걸려 죽고, 그간 그나마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유모 자리마저 잃고 만다. 이 상황에서 봉염 모는 소금 값이 싼 조선에서 소금을 밀수입해 간도에 파는 방법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택하게 된다. 천신만고 끝에 간도에 이고 들어온 소금을 사염(私鹽) 밀수죄로 적발되어 뺏기고 봉염 모는 결국 순사에게 끌려가면서 소설은 마무리된다.

“소금”이란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에서 “소금”은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관염(官鹽)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와 결탁하고 있는 식민지 국

가 권력의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기호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 “소금”을 매개로 하여 봉염 모가 공산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소설의 설정을 고려한다면, “소금”은 공산주의 운동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연대 가능성과 그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희망을 또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금”의 상징적 의미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먹칠로 가려 놓은 일제의 검열 때문에 작품의 발표 당시에는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작품의 발표 시점인 1934년으로부터 각각 약 70년과 50년이 지난 후 남한과 북한에서는 먹칠에 가려진 작품의 ‘원본’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여 놓고 있다. (3)은 2005년 한만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식실의 도움을 얻어 과학적 방법으로 복원한 <소금>의 마지막 부분이며, (4)는 북한 문예출판사에서 1986년 펴낸 강경애 작품집에 수록된 복원판이다.

(3) 밤 산마루에서 무심히 아니 알뜰게 들었던 그들의 말이 OO떡오른다. “당신네들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는 데서만이 우리들의 적인 돈 많은 놈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킁킁한 어둠 속에서 이어지던 이 말! 그는 가슴이 으적하였다. 소금 자루를 빼지 않던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 싸울 것 같다. 아니 꼭 싸워줄 것이고 “OOO 내 소금을 빼앗은 것은 돈 많은 놈이었구나!” 그는 부지 중에 이렇게 고함쳤다. 이때까지 참고 놀랐던 불평이 불길 같이 솟아 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sup>19)</sup>

(4) 봉염 어머니는 순사에게 끌려가며 밤의 산마루에서 무

19) 이는 한만수, 「강경애 <소금>의 ‘붓질 복자’ 복원과 북한 ‘복원본’의 비교, 김인환 외 편, 앞의 책, 35-38면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한만수는 사광(射光)에 의한 육안 판독법을 통해, 먹칠 검열로 감춰진 글자 최대 222자 중 205자를 해독하였고 O 부호로 표시된 5자를 제외한 12자는 문맥에 비추어 복원하였다. 한만수의 방법을 통한 복원률은 최대 92.6%에 이른다.

심히 듣던 말,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알고십니까.” 하던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비로소 세상일을 깨달은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왜놈들의 선전이 거짓 선전이며, 봉식이 아버지가 공산당의 손에 죽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리고 봉식이 경비대에 잡혀가 사형을 당했다는 광등의 말 역시 믿을 수 없는 수작이며 봉식은 틀림없이 공산당에 들어가 그 산사람들과 같이 싸우고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왜냐면 봉식은 똑똑하고 씩씩한 젊은 이이기 때문에! 봉염 어머니는 벌써 슬픔도 두려움도 없이 순사들의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558, 북한 문예출판사, 1986)

(3)의 복원 결과 분명 봉염 모는 “소금 자루”를 뺏지 않은 공산당과 뺏아가려는 “돈 많은 놈들”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면서 전자와의 연대 의식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서 이 연대 의식은 “부지중”에 나오는 “고함”이자 “불평이 불길 같이 솟아 올라” “벌떡 일어나”는 무의지적 동작으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 (4)의 북한 판 복원에 따르면 이 연대 의식은 일제에 대한 적대감,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에 대한 깨달음, 봉식으로 표상되는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부수하며, 결국 봉염 모는 자각적 공산주의적 주체로 재탄생하는 데까지 이른다. (3)의 복원을 시도한 한만수의 해석에 따르면, 봉염 모가 떠올린 공산당의 발언은 “창작자” 강경애가 “투쟁성”을 성취하기 위해 제시해 놓은 “답변”, 즉 작품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전언에 해당한다. 한만수는 (4)에서 해당 발언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된 것에 대하여, “계속 반복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끝까지 유예하는 선택은 창작자로서는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4)의 복원이 강경애가 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sup>20)</sup>

20) 위의 글, 40면.

그러나 봉염 모가,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공산당에 대해 적대감을 지녀왔다는 점을 여기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소금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기 직전, 즉 확실치는 않으나 봉식은 처형되었고, 남편은 살해되었으며, 봉염과 봉희는 전염병으로 죽고, 자신은 유모 자리에서 쫓겨난 때, 그는 “자신이 이러한 비운에 빠지게 된 것은” “모두가 공산당 때문”(525)라고 생각한다. 또 소금을 이고 국경을 넘어 간도로 오는 과정에서 공산당에게 발각되어 그들의 연설을 들은 후 풀려나왔을 때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이와 같은 구렁이에 빠친 저들 원수를 마주서고 말 한 마디 못하고 떨고 섰던 자신”(535)를 저주하기까지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3)과 (4)의 복원판에서 공산주의에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비약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 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차라리 죽음보다도 무서운” “끓는다는 것”(528)을 방지하여 줄 유일한 수단인 “소금”을 공산당과 연대한다면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소금”을 공산주의 이념의 매개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의미가 “소금”에 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봉염 모라는 인간의 모든 것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사적 상황은, 이 순간 “소금”의 물질성으로 완전히 환원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봉염 모는 역설적으로 고유한 주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주체성의 거처가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강경애가 당시 의도했던 주체를 담고 있는 텍스트가 찍힌 인쇄물과 그것을 가리고자 한 먹칠 사이의 공간, 다시 말해 작가 강경애의 의도를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현재의 해석자들이 자기 나름의 의미화를 무한정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일 것이다. 그 사이 공간에서 ‘과학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강경애의 간도적 글쓰기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4. 결론

간도 시대 강경애 문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여성성과 계급의식이라는 두 가치 개념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대표작 〈인간 문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로서는 드물게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장편소설의 주인공 선비는 끝내 계급의식을 지닌 주체로 재탄생하지만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급으로부터는 탈락한다. 그녀의 개안은 소설의 남주인공 첫째에게 전이되어서야 비로소 현실 변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현실로는 직접 번역되어 들어오지 못하는 선비의 여성성은 기존 논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었다. 첫째 여성성은 〈인간 문제〉가 제시하는 전망이 추상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소설의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꺾진하게 그려진 바, 현실 속에서의 여성의 수난과는 상관없이, 결말부에서 급작스레 제시되는 전망이란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성은 〈인간 문제〉가 제시하는 전망의 추상성을 보충하여 준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수난을 배제한 채 제시되는 전망이란 추상적일 수밖에 없음이 끝내 남는 선비의 여성성을 통하여 암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독법은 공통적으로, 작가가 작품의 결론으로 의식적으로 제시해 놓은 계급주의 전망을 〈인간 문제〉의 궁극적 의미로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인간 문제〉의 그러한 전망이란 추상적이거나 혹은 보충물을 통하여 부정적으로만 긍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독법은 전망보다도 보충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언제나 작품의 담론적 표면에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서만, 또 작품이 재현하는 현실 속으로 번역되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서만 현현하는 여

성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간도 시대 강경애 문학은 어떤 의미화도 거부하는 ‘문제’의 형식으로 남으며, 그것을 해석하는 현재의 독자는 그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려다가 실패하는 자로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강경애 문학의 ‘문제’적 형식성은, 담론적으로는, 음성화되지 않는 부호,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형태소를 통해 드러나며, 내용적으로는 궁극적 의미화의 좌절로 나타난다. 이를 이 논문에서는, 그 어떤 보편적 세계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간도’라는 곳의 지방성이, 저자와 독자 사이의 끝없는 상호적 해석을 통하여 무한히 연장되는 ‘글쓰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아, 이를 ‘간도적 글쓰기’로 명명하였다. ‘간도적 글쓰기’는 강경애의 진의와 그것을 가리는 먹칠 사이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어떤 현실적 전망보다도 더 현실적인 여성성이라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강경애, 《강경애 전집》, 이상경 편, 소명, 1999.  
 강경애, 《인간 문제》, 최원식 편, 문학과지성사, 2006.

2. 단행본

- 김인환 외 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Derrida, Jacques,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Spivak, Gayatri Chacravorty,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1998)

3. 논문

- 김민정,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영향과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 『어문학』 85, 2004, 315-337면.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25, 2008, 311-343면.  
 배상미, 「식민지시기 무산계급 여성들의 사적영역과 사회변혁: 강경애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4, 2015, 355-400면.  
 소영현, 「‘육망’에서 ‘현실’까지, 주체화의 도정: 강경애의 <인간 문제> 검토」, 『한국근대문학연구』 2-2, 2001, 31-51면.  
 송명희, 「강경애 문학의 간도와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 2008, 7-33면.  
 이상경, 「1930년대 후반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강경애의 <어둠>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 2005, 13-41면.  
 정미숙, 「강경애 소설과 ‘간도’의 공간적 시점」,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 2008, 35-56면.  
 정원채, 「강경애의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에 대한 인식」, 『현대소설연구』 42,

2009, 437-471면.

최원식, 『<인간 문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과와 한계』, 강경애, 《인간 문제》, 최원식 편, 문학과지성사, 2006.

최학송, 『'만주' 체험과 강경애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33, 2007, 438-464면.



<Abstract>

## Kang Kyōng-ae's Kando-Écriture Kando Locality and Femininity

Choe, Hyon-Hui

The existing literature on Kang Kyōng-ae's work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rends according to how they evaluate the author's two main core values: class consciousness and femininity. Kang's representative fictions, including the novel *From the Wōnso Pond* (In'gan Munje), clearly show the author's Marxist view on the colonial Korean society. In the meantime, the author's typical narrative evolves around the topics of the society's violence against female protagonist and her self-sacrifice. The first trend of Kang Kyōng-ae studies criticizes that the author ignores the concrete reality that women must face to forcefully vision the ideological future. In second trend, researchers tend to value the femininity that is paradoxically brought forth when Kang's Marxist vision turns out to be impossible without ignoring the concrete reality faced by women.

If Kang's Marxist visioning of future can be justified only when it is supplemented by the unconsciously foreclosed femininity, is not it more reasonable to focus on the supplement which renders the visioning possible? If one focuses on how the femininity manifests surreptitiously only as the form of the unrepresentable on the discursive surface, or as the from of the untranslatable to the reality

that is represented in the works, Kang's Kando period works become a problem, which insistently defies any sort of solution and Kang's reader always becomes the one who fails to solve the problem. The problematique of Kang's writing reveals itself as non-phonetic and anti-semantic signs at the discursive level, while at the level of content it manifests as the ultimate failure of signification. What I call Kando-écriture in this paper is this surreptitious manifestation of Kando locality and femininity.

Key words: Kang Kyöng-ae, Kando, Femininity, Locality, Écriture

투 고 일 : 2017년 1월 31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